



소개

밸리 오브 인벤션(THE VALLEY OF INVENTIONS)

흑독한 겨울이 빚어낸 정밀함과 정확성의 발상지

핵심 내용:

- **밸리 오브 인벤션:** 발레드주에서 탄생한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담은 메종의 2026 년 테마
- **자연환경이 빚어낸 매뉴팩처:** 척박한 환경에서 탄생한 예거 르쿨트르의 혁신 정신. 현대 파인 워치메이킹의 초석이 된 인내와 독립성, 그리고 창의성
- **정밀함과 정확성을 향한 끊임없는 탐구:** 19 세기 크로노미터와 대회에서 수상한 투르비옹부터 2026 년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와 히브리시 인벤티바로 이어지는 여정

모든 전설에는 저마다 시작이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역사는 16 세기,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위그노 피난민들이 자리를 잡았던 스위스 쥐라 산맥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안식처에서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거친 자연, 울창한 숲과 흑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 그리고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대를 거치며 창의성과 혁신 정신으로 거듭났고, 이는 1833 년 르쿨트르 워치메이킹 아틀리에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새로운 생산 도구와 최초의 통합 매뉴팩처 설립, 혁신적인 공정, 전례 없는 컴플리케이션의 탄생 등 끊임없는 발명이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430 건 이상의 특허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거 르쿨트르는 82 개의 아틀리에와 108 개의 워치메이킹 제작 기술, 69 개의 시그니처 노하우를 한곳에 통합한 진정한 매뉴팩처 아틀리에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2026 년 테마 '밸리 오브 인벤션(The Valley of Inventions)'을 통해 메종이 탄생한 지역이 빚어낸 유산을 조명합니다. 척박한 자연 속에서 형성된 이들의 기술력은 수많은 발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워치메이킹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I - 16 세기부터 19 세기: 정밀한 워치메이킹의 기원

고대 문명이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워치메이킹의 역사는 끊임없이 정확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14 세기 중반 기계식 시계가 발명되면서 정확성을 향한 움직임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시계 제작 기술력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마침내 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의 포켓 워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소형화되면서 부품 가공과 무브먼트 설계, 조립 전반에 더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었습니다. 이후 발레드주의 앙투안 르쿨트르(Antoine LeCoultre)는 이러한 정밀함을 전례 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름의 농경에서 겨울의 워치메이킹으로 이어지는 여정

1559 PIERRE LECOULTRE SETTLEMENT Pierre LeCoultre left Geneva for the Vallée de Joux, driven by an entrepreneurial spirit	1612 LE SENTIER IS ESTABLISHED Pierre LeCoultre (son) built a chapel that established the village of Le Sentier	1823 PRODUCTION OF QUENCHED METAL Antoine LeCoultre joined his father in the family's forge and started working with iron alloys
--	--	---

1559 년, 고국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해 망명한 피에르 르쿨트르(Pierre LeCoultre)가 발레드주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이 계곡은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1,000 미터의 거친 암석 지대와 숲으로 뒤덮인 곳이었습니다. 피에르 르쿨트르는 토지 소유권을 얻어 숲을 개간하고 농장을 일궈냈습니다. 1612 년, 그의 아들인 피에르가 건립한 예배당을 중심으로 르 상티에(Le Sentier) 마을이 생겨났으며, 이곳은 오늘날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탄생지로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발레드주의 삶은 농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름철에는 비옥한 목초지에서 가축을 길렀으며, 특히 우유와 치즈 같은 낙농업은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곡의 고립된 지형과 혹독한 기후로 인해 삶의 방식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 맞춰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면 농사일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몇 달간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급자족이 불가피해진 농부들은 집안으로 대장간을 들였고, 긴 겨울 동안 생계를 이어갈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일터는 들판에서 대장간으로 옮겨갔고, 그 절실함은 창의성을 탄생시켰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인내와 끈기로 다져진 정교함과 세심함을 기반으로, 이들은 점차 칼날, 버클, 자물쇠, 손잡이 같이 작고 정밀한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 동안 기술을 더 갈고닦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시계 제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피에르 르쿨트르가 발레드주에 정착한 지 10 대째 되던 해, 16 세의 앙투안 르쿨트르(Antoine LeCoultre)는 아버지의 작은 대장간에 합류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고 오르골의 핀과 진동



날을 완성했습니다. 1823년에는 경화된 강철로 면도칼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같은 담금질법을 활용하는 위치메이킹용 끌을 고안했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앙투안 르쿨트르는 위치메이킹 기술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생산 방식인 에타블리사주에서 현대적인 제조 방식으로의 변화

1830 THE PINION-CUTTING MACHINE Invented by Antoine LeCoultre, enabling greater accuracy and series production	1833 WATCHMAKING ATELIER Antoine LeCoultre transformed the family forge in La Sarriey into a watchmaking atelier	1866 FIRST INTEGRATED MANUFACTURE Antoine LeCoultre and his son Elie united all the watchmaking crafts under one roof	1877 THE MANUFACTURE BECOMES LECOULTRE & CIE Becoming known as 'The Watchmaker of Watchmakers'
--	--	---	--

위치메이킹을 독학하던 중에도 앙투안 르쿨트르는 이미 다른 발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1830년에는 강철 피니언을 절단하는 기계를 발명하여, 수작업으로 금속을 갈아내던 번거로운 공정을 효율적으로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강철을 틀에 통과시켜 뽑아낸 재료로 피니언을 만들었으나, 앙투안 르쿨트르는 단단한 강철 덩어리를 직접 깎아 부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품질과 정확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대량 생산 시에도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1833년 앙투안 르쿨트르는 르상티에에 있는 가족 대장간을 시계 제작 공방으로 바꾸고 자신의 이름을 건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위치메이킹은 에타블리사주(Établissage)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는 주로 농가 다락방에 자리 잡은 소규모 독립 공방들이 저마다의 시계 제조 공정을 전문적으로 분담하던 전통적인 형태였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위치메이커 개인이 전문 분야의 숙련도를 높일 수는 있었으나, 시계를 완성하는 공정 전체를 놓고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르쿨트르는 여러 전문가로부터 부품을 조달했으나 그 과정은 번거로웠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측정 기준이 없어, 모든 시계는 개별 제작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밀함과 정확성에 대한 열정을 지녔던 르쿨트르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운영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위치메이킹의 판도를 바꿀 아이디어로 이어졌고, 1866년 앙투안 르쿨트르와 그의 아들 엘리(Elie)가 모든 공정을 한데 모으며 마침내 결실을 보았습니다. 발레드주에 최초의 통합 매뉴팩처를 설립한 것은 시대를 앞선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효율성을 높여 표준화된 시리즈 생산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지혜를 한데 모으는 '집단 지성'의 장이 되었습니다. 위치메이커들의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가 한데 모여 활발한 아이디어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워치메이킹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혁신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발레르주 최대 규모의 워치메이킹 제조사로 성장한 르쿨트르 앤 씨(LeCoultre & Cie)는 이후 그랑 메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독보적인 유산

1844 THE MILLIONMETRE Invented by Antoine LeCoultre, reaching the point of fine watchmaking	1850 THE ROUNDING-UP TOOL Invented by Antoine LeCoultre, improving the quality of gear tooths	1851 INTERNATIONAL RECOGNITION Antoine LeCoultre won the Gold medal at the World's Fair in London, the Great Exhibition	1860 THE PLATE- CUTTING TOOL Invented by Antoine LeCoultre, machining the invisible base that anchors every calibre	1860s CALIBRES WITH COMPLICATIONS LeCoultre's invention made it possible to develop watches of greater complexity
--	--	--	--	--

시계가 작아지면서 더욱 정밀한 측정이 필요해지자 소형화 기술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앙투안 르쿨트르는 혁신적인 발명품인 밀리오노미터를 제작했습니다. 1844 년에 도입된 이 기기는 미크론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장치로, 부품 측정의 정밀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앙투안 르쿨트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작은 규모로 더욱 정확하게 부품을 측정하고 자를 수 있는, 정밀하게 보정된 커팅 및 스탬핑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1850 년에는 기어 트레인의 품질을 향상시킨 휠의 모양을 다듬는 라운딩 업 장치를, 1860 년에는 모든 칼리버를 고정하는 데 필수적인 베이스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플레이트 커팅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1851 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 1 회 만국박람회에 참가한 그는 여러 작품을 출품하여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부품 호환성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정밀함과 정확성에 대한 열정이 낳은 결과로, 수많은 혁신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르쿨트르의 발명품은 시간 측정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부품의 소형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더욱 작은 크기의 정교한 시계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캘린더 기능, 문페이지 디스플레이, 차임 컴플리케이션, 크로노그래프와 같은 컴플리케이션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1860 년부터 1900 년 사이, 매뉴팩처는 35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를 제작했습니다. 1860 년대 후반 첫 캘린더 칼리버가 개발됐습니다. 이는 아카이브에서 발견된 1868 년 무브먼트로, 해당 모델은 컴플리트 캘린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칼리버 중 대다수는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했습니다. 66 개의 미닛 리피터를 포함한 99 개의 차임 칼리버, 128 개의 다양한 크로노그래프, 크로노그래프와 리피터 기능을 결합한 33 개의 칼리버, 8 개의 울트라 썬 칼리버, 그리고 8 일간의 파워리저브를 갖춘 칼리버 1 개가 제작되었습니다.



1890 년대, 매뉴팩처는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미닛 리피터라는 세 가지 주요 컴플리케이션을 결합한 최초의 그랑 컴플리케이션 칼리버를 선보였습니다.

II - 20 세기부터 21 세기: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정밀함과 정확성 추구

베일에 싸여 있던 발레드주는 이제 변치 않는 기술력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숙련된 노하우는 창의적인 상상력을 거쳐 혁신적인 발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메종의 정교한 워치메이킹 기술력은 발레드주의 워치메이킹 유산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며, 이곳을 컴플리케이션의 탄생지로 만들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칼리버는 스위스의 유명 워치메이킹 하우스들이 자사 제품에 도입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메종은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크로노메트리: 품질과 혁신의 시그니처

1895 CHRONOMETRE DE TORPILLEUR Precision at sea, certified chronometre ($\pm 4s$ / day) for longitude calculation	1949 MARK XI PILOT WATCH Precision in the skies, certified chronometre ($\pm 4s$ / day), anti-magnetic, hacking second	1958 GEOPHYSIC Precision in exploration, certified chronometre, anti-magnetic, shock resistant	1964 GEOMATIC Independent chronometre certification, civilian use	1992 MASTER CONTROL 1,000 HOUR The reference: first in-house certification, testing fully casual watch model for 5 weeks	2026 MASTER CONTROL CHRONOMETRE New standard with double certification: COSC certified, HPG certified
--	---	--	---	--	---

크로노메트리는 정밀함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핵심 가치입니다. 르쿨트르 앤 씨는 19 세기 초부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포켓 워치를 제작했으며, 단순한 메커니즘에서 복잡한 컴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정밀함을 구현했습니다. 1890 년, 매뉴팩처는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그랑 컴플리케이션을 선보이며 기술적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마린 크로노미터부터 파일럿 워치, 지오피직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정밀함과 정확성은 바다와 하늘, 지상의 탐험가들과 모든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1992 년 매뉴팩처는 새로운 마스터 컨트롤 컬렉션을 출시하며 '1,000 시간 컨트롤' 테스트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완성된 시계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탄생한 새로운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는 메종의 새로운 씰인 'HPG(High Precision Guarantee)'를 선보입니다. 이는 정교한 미적 마감을 넘어, 타임피스의 탁월한 정확성까지 보증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이 인증은 특허 출원 중인 엄격한 프로토콜을 거칩니다. 시계를 완전히 조립한 상태에서 실제 착용된 환경을 재현하여 정밀하게 테스트하고, 고도, 충격, 위치, 온도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성능을 철저히 평가합니다.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이러한 방식은 이상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도 시계의 정교한 메커니즘이 최상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HPG 셀 외에도, 테스트의 정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는 권위 있는 COSC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이는 ‘크로노미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입니다.

투르비용: 정밀함과 정확성을 위한 기계적 걸작

1801 INVENTION OF THE TOURBILLON Patented by Abraham-Louis Breguet	1946 POCKET WATCH TOURBILLON First tourbillon created for chronometry competitions, certified > 1s / day	1993 REVERSO TOURBILLON The first wristwatch tourbillon, COSC standard	2009 CALIBRE 978 AWARD-WINNING In the first modern chronometry competition, a demanding 45-day trial	2014 CALIBRE 985 Cylindrical flying tourbillon to enhance isochronism	2026 MASTER GRANDE TRADITION TOURBILLON JUMPING DATE A new movement architecture for Calibre 938
---	--	---	---	--	---

밸런스 휠과 헤어스프링으로 구성된 조정 기관은 기계식 시계 무브먼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헤어스프링의 팽창과 수축에 의해 제어되는 작동의 규칙성을 뜻하는 등시성은 정확한 시간 측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중력은 조정 기관의 등시성을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를 거듭해 왔으며, 그 결실 중 하나인 투르비용은 밸런스 휠을 케이지 안에서 회전시켜 중력의 영향을 상쇄합니다. 크로노메트리 대회를 통해 기술력을 증명하고자 제작된 예거 르쿨트르의 첫 투르비용 칼리버는 1946 년 대회에서 하루 오차 ± 1 초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매뉴팩처는 조정 기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며, 크로노메트리 성능 향상을 위해 수많은 기술 혁신을 이루어 냈습니다. 정밀함과 정확성을 향한 메종의 탐구는 투르비용 케이지 구조와 헤어스프링 형태에 관한 수많은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특허를 획득한 S 자형 헤어스프링은 외측 코일이 위쪽과 안쪽으로 휘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정확성과 안정성을 한층 높여줍니다. 특히 리베르소에 탑재된 울트라 썬 투르비용에서 그 특성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매뉴팩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통형, 구형, 반구형과 같은 3 차원 형태의 헤어스프링을 개발했으며, 이러한 구조는 팽창과 수축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밸런스 휠의 진동을 보다 동심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그 결과 등시성이 향상되고 다양한 형태의 조정 기관에 이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투르비용 칼리버 중에서도, 칼리버 978 은 역사적인 성과로 손꼽힙니다. 이 칼리버는 2009 년 스위스 르 로클의 국제 시계 박물관(International Museum of Horology) 50 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 1 회 현대 크로노메트리 대회에서 45 일간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평가는 투르비용 이스케이프먼트 본연의 목적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매뉴팩처의 뛰어난 장인 정신과 정밀함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칼리버 978 은 출시 당시 정교하게 설계된 새로운 '점핑' 데이트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날짜는 다이얼 외곽에 표시되며, 투르비용 표시창 양옆에 위치한 15 일과 16 일 사이를 약 90 도 각도로 건너뛸니다. 이로 인하여 매달 15 일 자정이 되면 날짜를 알리는 핸드가 투르비용을 가리지 않으면서 16 일로 이동합니다. 무브먼트 구조를 재구성한 최신 칼리버 978 이 탑재된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투르비용 점핑 데이트**는 새로운 42mm 18K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로 선보입니다. 참신한 다이얼 디자인과 정교한 고급 워치메이킹 마감을 더해 칼리버의 역사에 경의를 표하는 세련된 모델입니다.

다축 투르비용: 상징적인 발명



손목시계가 보편화됨에 따라, 워치메이커들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을 제어하는 데 있어, 다축 투르비용이 단일 축 투르비용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4 년 예거 르쿨트르는 첫 번째 자이로투르비용을 공개하며 혁신적인 다축 투르비용 시리즈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진동 시스템이 수평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2 축 투르비용을 통해 다축 투르비용 분야의 선구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이후 출시된 각 세대의 자이로투르비용은 정확성과 예술성의 경계를 넓혀왔습니다. 2 세대는 아이코닉한 리베르소 케이스에 최적화된 새로운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3 세대는 반구형 헤어스프링을 탑재한 최초의 플라잉 자이로투르비용을 도입했습니다. 4 세대는 완전한 플라잉 구조를 실현하며 역대 가장 빠른 자이로투르비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5 세대는 자이로투르비용과 콘스탄스 포스 메커니즘을 결합하며 고도의 소형화를 완성했습니다.

약 80 년간 축적된 투르비용 레귤레이터 기술력을 집약한 **마스터 히브리드 인벤티바 자이로투르비용 아 스트라토스페르**(칼리버 178)는 특허를 출원한 3 축 투르비용 구조를 통해 기술적 진보를 이뤘습니다. 3 축 투르비용의 운동학적 메커니즘은 98%의 자세 범위를 아우르며 중력이 시계의 정확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합니다. 자이로투르비용 아 스트라토스페르는 등시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진폭(밸런스 휠의 앞뒤 진동), 위치, 파워 리저브에 관계없이 항상 동심원으로 진동하는 실린더형 밸런스 스프링을 탑재했으며,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라믹 볼 베어링 위에서 구동됩니다. 세 개의 티타늄 투르비용 케이스는 모든 자세를 지속적으로 커버하기 위해 x, y, z 축을 따라 각기 다른 세 가지 속도(내부 케이스



20 초, 기준이 되는 중앙 케이지 60 초, 외부 케이지 90 초)에 한 바퀴씩 회전합니다. 이 투르비용은 현존하는 제품 중 가장 폭넓은 위치에 대응하며, 진동자의 정확도에 미치는 중력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컴플리케이션 추가: 정밀함과 정확성을 위한 또 다른 도전

2007 DUOMETRE CONCEPT The mechanism features two barrels and two independent gear trains linked to a single escapement.	2009 HYBRIS MECHANICA GRANDE SONNERIE Uniting a Westminster chime, a flying tourbillon, and a rattrapage perpetual calendar.	2010 CREATION OF CALIBRE 945 Uniting a minute repeater with an orbital flying tourbillon and celestial map.	2014 INVENTION OF CALIBRE 362 The world's thinnest automatic minute repeater tourbillon.	2026 MASTER HYBRIS MECHANICA ULTRA THIN MINUTE REPEATER TOURBILLON The first Hybrid Mechanical ultra-thin minute repeater tourbillon.
---	--	---	--	---

컴플리케이션, 즉 시, 분, 초를 넘어선 기능을 시계 무브먼트에 추가하면 이러한 기능을 구동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시간 측정의 정확도 유지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배럴에서 조정 기관까지 완전히 안정적인 동력을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컴플리케이션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트 디스플레이 또는 문페이스와 같은 연속 작동 컴플리케이션이고, 두 번째는 크로노그래프 또는 미닛 리피터와 같은 온디맨드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온디맨드 컴플리케이션은 간헐적으로 작동하고 때로는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러한 컴플리케이션은 작동 시 순간적으로 상당한 동력을 소모하여 조정 기관으로 향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잠재적으로 시계의 시간 측정 정확도와 등시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일시적 동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전용 동력원이나 정교한 클러치 메커니즘과 같이 보다 복잡한 기계적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매뉴팩처의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위치메이킹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왔으며, 그 결실로 2007 년 듀오미터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이 독창적인 발명품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어 트레인이 있는 2 개의 배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배럴은 각기 하나의 조정 기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기어 트레인은 시간 측정을 위해 사용되며, 다른 하나는 모든 추가 기능을 구동합니다. 컴플리케이션 작동이 시간 측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듀오미터는 위치메이킹 기술의 복잡성을 한층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정확도 보장했습니다.



까다로운 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미닛 리피터의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입니다. 미닛 리피터는 탄생 초기부터 칼리버 내부에서 독립적인 메커니즘으로 존재해 왔으며, 수많은 부품이 공을 강하게 타격하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은 19 세기 중반부터 이 메커니즘을 모든 형태로 완벽하게 다루어 왔으며, 정확성은 물론 차임의 음질과 순도를 끌어올리는 주요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2026 년 예거 르쿨트르는 하이 컴플리케이션 칼리버 362 를 새롭게 재해석한 **마스터 히브리드 메카니카 울트라 썬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을 선보입니다. 2014 년 출시 당시 획기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미학을 선보였던 칼리버 362 는 차임 컴플리케이션과 정밀 타임키퍼이라는 예거 르쿨트르의 뛰어난 유산을 계승합니다. 특허받은 S 자형 헤어스프링을 장착한 풀 플라잉 투르비옹은

조정 기관의 등시성과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두께 8.25mm 의 18K 5N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에 탑재된 전체 메커니즘은 칼리버의 스켈레톤 처리, 사파이어 브릿지, 무브먼트의 로터를 감싸는 오픈워크 링 형태의 다이얼을 통해 가감 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께 5mm 의 셀프 와인딩 칼리버에 플라잉 투르비옹과 미닛 리피터를 결합한 이 모델은 케이스 두께 8.25mm 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스위스 특유의 지형과 기후에서 형성된 기질이 기술 발전과 만나, 정밀함을 추구하고 완성하려는 발명 정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벨리 오브 인벤션은 193 년이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탄생의 터전에 깊이 뿌리내린 메종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의 엔지니어와 워치메이커,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완벽한 시간 측정을 향한 열정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벨리 오브 인벤션 소개

예거 르쿨트르의 탄생지이자 오늘날까지 터전이 된 발레드주를 기념하는 벨리 오브 인벤션은 600 년 전 유럽 각지의 망명자들이 안식처를 찾아 모여들었던 이 외딴 계곡에 경의를 표합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척박한 환경과 혹독한 추위 속에 살아남기 위해 강한 의지와 인내심, 창의성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 세대가 지난 19 세기 초, 독학으로 시계 제작을 익힌 앙투안 르쿨트르는 현대 워치메이킹의 초석이 될 기계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없던 정밀한 수준으로 시계 부품 측정과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1833 년 설립된 최초의 르쿨트르 워치메이킹 아틀리에에서부터 이러한 창의적인 정신과 정밀함 및 정확성의 추구는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칼리버는 자체 시계에 탑재하려는 유수 브랜드들의 선택을 받았으며, 메종이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라는 독보적인 명성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30 건 이상의 특허로 증명된 끊임없는 혁신은 메종이 추구하는 정밀함과 정확성의 동력이자,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표가 되어 줍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